

한형조

무문관 탐방

(78) 끝

에필로그

지금도 그 정체를 모른다. 무엇이 그토록 열에 들뜨게 하며, 삶의 의욕을 무화시키며, 대학을 혐오스럽게 했는지. 학문은 규격화되어 있었고, 강의는 답답했으며, 젊은이의 삶의 고민에 다가서는 절실한 가르침은 없었다. 한 학기를 건너다가 결국 휴학계를 던지고 산 속 암자에 틀어박혔다.

한밤중 폭포가 내리 쏘는 바위 위에 땀을 대며 혀를 핏아 있기도 하고 마을에 내려가 막걸리를 따 넣기도 했다. 겨울날 시린 폭포에 한 시간 너머 들어갔다 나온 적도 있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군불 땀 암자에 한 자질을 입을 딱딱 부딪치고서야 잠이 들었다. 그러도 신열은 가라앉지 않았다. 풍양주 보살은 내가 고시공부하러 온 사립인 줄 알았고,

건넌 방의 역술인은 내 책상 위에 펼쳐진 (파우스트)를 보고 질겁을 했다. 악마와 영혼을 거래하다니. 귀신이 썩어도 단단히 썩었다면서 말쑥잡치 꼬리를 쳤다. 고소를 머금으며 훌쩍 길을 떠났다. 통도사 극락암에는 미려한 손님이 있었다. 진주 어디에선가 산부인과를 한다는 의사와 그 일행. 아이를 떼러 오는 사람들이었다. 하자 경봉노사는 어리개같은 장난기를 머금고, 모른척 보약을 달여주라고 종용했다. 나는 불속 나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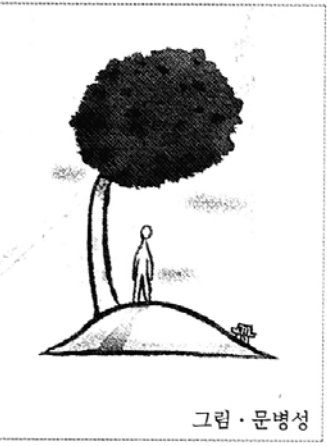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의미찾지 말고 욕망을 지우자”

선과 지혜의 건너편 정토와 귀의에 새로 눈떠

그건 사기요 기만 아니냐고 뱀아벼렸다. 방한구석에 놓인 바나나 바구니에 속이 뒤엎린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노사는 벽력같이 소리를 질렀다. “비보같은 놈, 말 머리가 어디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말 머리(화두)라니... 그것이 떨어지는 어느 곳에 영원의 소식이 있을까. 암자에 돌아와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를 시작했다. 한글로 된 경전을 두어 뒤졌지만 번역만으로는 의미가 선명치 않았다. 원전을 파보기로 했다. 한역 경전과 주석으로 (금강경)과 (관각경)부터 손에 들었다. 역설과 반어, 가공의 상상이 교차하는 비상식과 비논리의 변증에 지칠 무렵, 선(禪)의 문헌과 만났다.

충격적 스타일. 이로(理路)를 따라가지 않고, 설명을 핑계친, 촌철살인의 경구자 정수리에 내리 박히는 그 청철함! 화두와 어록을 만나면서 정신이 맑아지고 신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벽암록>과 <무문관>, <선언업소>는 나를 내 삶 속에서 만나, 삶 이전이나 혹은 이후에서 바라보게 해주었다. 그것은 흡사 저 세계에서 나를 바라보는 듯한 낯선 경험이었다. 선가의 표현을 빌리면, “나귀가 우물을 보지 않고, 우물이 나귀를 보는” 그런 세계, 그렇다. 삶이란 결국 무의미한 것. 의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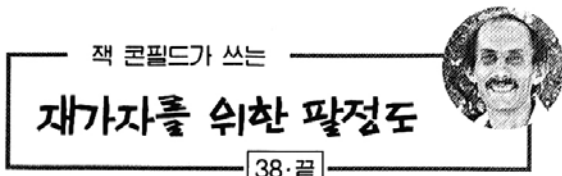
정을 받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이 참에 내가 익힌 불교와 선을 정리해보자고 작정했다. 마침 대학원에서 선어록을 강의하고 있던 터라 <무문관>을 실마리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연재에 들어 오를 무렵 먹구름이 온 나라를 뒤덮었다. 올봄 내게도 뜻하지 않은 환란이 겹쳤다. 가슴은 답답하고 머리로는 열이 뻗어 종일 뜬눈으로 거실을 서성였다. 그렇게 한 달을 지내자 꼭 죽을 것같았다. 아니, 차라리 죽으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것같았다. 자식 앞에 장사 없다더니, 선은 그로부터의 해방지는는 장담하지 못한다. 산너머 청계사의 법당이 었더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오체투지,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나는 선과 지혜의 건너편에 있는 불교의 또 다른 축, 정토와 귀의에 가슴 저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가 아는 불교는 반쪽이었다. 눈앞은 독자들은 감지했을 것이다. 연재 중반쯤에 내 글의 초점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이제 불교공부를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동안 내 황실수실을 견뎌오신 독자여러분과 편집진에게 고마움과 더불어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짧은 작별을 고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행복과 해탈의 바른길 안내

<재가불자를 위한 팔정도>는 태국의 고승 아잔차 스님에게 수학한 책. 콘필드가 90년대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실시한 강연 자료를 묶어 발간한 책이다. 당시 콘필드는 아잔차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남방불교 수행자로서 또 명상 지도자로서 미국인 불자들에게 존경받고 있었다.



38·끝

아잔차 스님과 콘필드와의 첫 만남은 1971년 태국 왓빠에서 이루어졌다. ‘왓(Wat)’은 사원을 뜻한다. 그때 콘필드는 인도 성지순례를 마

책 콘필드와 아잔차

치고 아잔차 스님을 찾았던 것이다. 지금의 미국·영국인 불자들은 아잔차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고 있지만, 60년대까지만 해도 눈부른 서구인들에게 아잔차 스님은 황색기사를 입은 낯선 태국 승일 뿐이었다. 콘필드가 스님을 찾은 것은 미국을 방문한 한 태국스님으로부터 아잔차 스님을 소개 받았기 때문이다.

아잔차 스님이 주석했던 왓빠는 넓이가 1백 에이커가 훨씬 넘는 태국에서 가장 거대한 사원이다. 또 장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검소한 막사들이 나무를 베어낸 숲속 공터에 자리잡고 있고, 이들 원두막 사이 나무

정을 고요히 하여 참다운 통찰 쪽으로 마음을 여는, 단도직입적이고 소박한 수행법이 담겨 있다.

사실 마음을 챙기고 자신을 관하는 이와 같은 수행법은 서구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몸과 정신과 마음을 길들이는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수행법이 되었다.

콘필드는 “어릴적 아잔차 스님은 ‘스님 흉내내기’를 좋아해 발우를 들고 파자나 사탕을 구걸하곤 했다”며 “그때 스님은 수행의 근본인 인내와 참음성을 배울 수 있었다고 제자들에게 말하곤 했다”며 당시 기억을 더듬었다.

또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본 경험에서 아잔차 스님은 세간에서 겪지 않던 안되는 고통의 원인과 부처님이 가르친 평화와 자유의 근원을 찾아 수행을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7년 태 왓빠서 상봉 명상수행·실천에 역점 동서양 제자 내적 평화 얻어

미국인들의 거처도 있었다. 콘필드는 “당시 20여명의 서구인들이 단·장기로 막사에 머물며 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도 역시 외국인 막사에서 아잔차 스님의 수행관을 배웠던 것이다.

<재가불자를 위한 팔정도>에는 아잔차 스님의 가르침 가운데 불교 명상의 핵심으로 부르는 수행방인 십



태국 왓빠사에서 함께한 아잔차스님(사진 오른쪽)과 책 콘필드.

아잔차 스님은 어떤 이유에서도 왓빠에서 머물며 좌선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아잔차 스님의 맑고 유쾌한 성품, 숲속 수행에서 얻은 솔직성을 동·서양의 제자들이 모두 좋아했으며, 스님에게서 탐구욕, 유머, 경탄, 이해심, 깊은 내적 평화같은 것들을 배웠다고 한다.

콘필드의 강연 자료를 묶어 발간된 <재가불자를 위한 팔정도>에는 실천수행을 이야기할 뿐 이론을 논하지 않았던 아잔차 스님의 가르침, 즉 인간의 행복과 대지의 해탈을 향한 바른 길이 놓여 있는 것이다.

왓빠를 입구에 세워진 곳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법을 실천하고 진리를 깨닫는 것, 공생에 오직 한 가지 가치있는 일입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시간 아닐까요?”

번역·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불교와 수학

82·끝

연기와 함수

김용운

불교의 근본사상인 ‘제행무상(諸行無常, 모든 것은 변한다)’은 현상을 연기의 결과로 본다. 즉 무상과 연기는 동전의 앞, 뒤와 같은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수학의 근본 개념은 현상을 이루는 요소의 변화는 하나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함수개념에서 출발했다. 이들은 변화를 사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이지만 불교는 인간으로서의 도저히 보이지도, 생각할 수도 없는 것까지도 변화의 요인으로 삼는데 비해 수학은 오직 확고히 인식되는 요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필자는 고대 유적의 발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왜 중요한 유적은 한결같이 땅에 묻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곤 했다. 땅위에 그대로 있었다면 풍우로 마멸되거나 흩어져 버렸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답이 아닌 무엇인가 다른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답은 진화론으로 유명한 C. 다윈에 의해서 설명된다. 흰 석회암을 잔디밭에 살포하고 그대로 방치

해 둔후 10년후 다시 그곳을 찾은 다윈은 석회암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파 보았다. 그러자 땅에서 약 7cm의 자리에 하얀 석회층이 나타났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것은 바로 지렁이의 활동 때문이었다. 지렁이는 조금씩 조금씩 땅 속을 파헤치고 다니며 자신들의 배설물로 비옥한 땅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런 과정에서 역사적 유물들의 대부분은 땅 속으로 묻혀지게 된 것이다. 땅의 표

불교 삼라만상의 보이지 않는 변화사유 수학 함수개념 명확한 변화요인만 파악

면에 있는 재나 쓰레기와 같은 것이 서서히 파묻혀 수십년이 지나면 땅 밑으로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며 층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실을 발견한 다윈은 고대 유적이 발굴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곳으로 달려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지렁이의 작은 구멍이 고대 건물의 어디에나 있음을 확인했다. 그후 전 세계에 걸친 지렁이에 관한 연구결과 1에이커(약 1200평정도)당 평균 약 5만 마리의 지렁이가 있음이 추정되었으며, 실제로 지렁이는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디에서나 육토 조성에 맹활약을 하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엔 눈에 띄지도 않

던 지렁이의 미미한 작업이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산의 폭발 못지 않은 엄청난 지질학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인류 문명 사상 최대의 발병의 하나가 평이었고 인간은 그것으로 땅을 갈아 왔다. 그러나 지렁이는 평이가 출현하기 훨씬 전부터 땅을 가꾸어 왔으며, 4억년 이전의 지층에서 발견되고 있는 지렁이의 화석은 그 활동이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음을 증명한다. 그 미미한

것도 없으며 이 순간에도 삼라만상 모두가 변화의 과정에 있다.

철학으로서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제행무상’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 변화의 목적은 무엇이며 방향은 어디에 있는가?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물음이다. 생물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때때로 특이한 사람들은 ‘무엇 무엇 때문에’라는 식의 말을 하지만 그것들은 한낱 가설에 불과하다. 요컨대 변화를 야기하는 그들의 행위에는 인간이 말하는 목적, 또는 의도라는 것이 없다.

지렁이는 고대 유적을 감추기 위해서 배설물을 땅 위에 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들 삶의 양식의 결과가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 뿐이다. 자연은 변화하기 위해서 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기론의 핵심은 세상 모든 것이 무목적, 무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변화의 바다 속에 헤매이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함수 개념이 명확한 변화 요인만을 파악하고 사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상 처음부터 그 한계에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지성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어 그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며, 그것에 지성인간(호모사피엔스)의 존귀함과 한계가 있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이온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목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시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 (대구여래한방)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싸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탄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중복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경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육고(경육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송선식(松仙食)) 「송소소정액(松勝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량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